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Parents-Adolescent Conflicts and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Conflicts*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신효식
강사 이경주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Hyo Shick, Shin

Lecturer : Kyeong Ju,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how different the degrees of the parent-adolescent conflicts and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conflicts were according to the sex. The subjects were 468 high school students. For data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Duncan-test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ex in the degrees of the parent-adolescent conflicts.
2.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conflicts were found to be argumentative behaviors in boys and discursive behaviors in girls.
3. There were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in the ways of representing the conflicts according to the degrees of the parent-adolescent conflicts.

주제어(Key Words): 부모-자녀 갈등(the parents-adolescent conflicts), 갈등표출방식(the ways of representing the conflicts)

* 본 연구는 1999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이란 필연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 및 또래관계 등에서 흔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오래 지속되는 친숙한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을 표현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갈등이 은폐되어 있거나 자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Rubenstein & Feldman, 1993).

사춘기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응이 유발된다(Silverberg & Steinberg, 1990)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들 상호간의 갈등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청소년 자녀는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가출충동, 자살충동을 느끼며(Patersen, 1988), 정체감 혼란, 우울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저항, 학업성적이나 성취도 평가와 같은 학업에 관한 도전, 휴연, 원하지 않은 임신, 약물이나 음주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Barber, 1994).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결과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심각한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많은 청소년들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청소년 비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일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경숙, 1987; 김경화, 1988).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느냐는 청소년과 부모 개인적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범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부모자녀 사이에 있어서 불가피하

며 동시에 자녀에게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적 문제 내지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갈등표출방식과 적응과의 관련성이 높게 입증된 결과(Bryant, 1992; Rubenstein & Feldman, 1993)를 통해서도 청소년 자녀- 부모와의 갈등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갈등 표출방식을 협상, 공격, 회피의 세 측면으로 제시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청소년들은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포함한 부적응을 높게 보였다. 갈등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청소년들은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청소년들은 적응상의 문제점이 가장 적었다(Rubenstein & Feldman, 1993)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자녀-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 표출방식에 관한 심도있는 경험적 연구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갈등 실태조사나 관련변인 탐색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뿐 이들이 실제 겪는 갈등의 정도와 갈등표출 방식은 어떠한지,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 방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몇 편의 선행연구(안병조, 1983; 유은희, 전춘애, 1995; 최선남, 1990)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갈등정도나 갈등 표출방식에 있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이를 나누어서 고찰하게 되면 남, 여의 갈등 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사료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갈등 대처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위한 기초적 접근으로서 청소년 남녀가 부모와 겪는 갈등 정도, 갈등 표출방식은 어떠한지,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 표출방식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남, 여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남, 여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표출방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 남, 여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 방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흔히 '심리적 격동기',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고 있듯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과도기이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재조절되는 과정이다.

정범모(1977)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주변인, 자아발견, 양향성 등을 들고 있으며, 국제청소년문화 교류회(1984)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위기, 반항감, 소속에서의 이탈, 심리적 불안정성과 정서의 가변성, 사회적 미성숙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권이중, 1992에서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기는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나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갈등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하겠다.

Vincent(1975)는 청소년기의 욕구를 첫째,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민주적 행동이 강하고 둘째,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셋째, 이성을 그리워하며 권위에 반항적이고 넷째, 편견하에 비정상적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며, 다섯째, 사회적 통찰력이 있어서 부모를 비판하고 불신하기 쉽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욕구에 비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동기와 동일하

게 다루며 자녀의 자기표현과 주장을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불순종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통제와 잔소리로 인지하면서 부모자녀관계는 갈등관계를 갖게 된다.

2. 부모-청소년자녀간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란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서로 상처되는 가정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로써 말다툼이나 폭력사용 등 외현적 행동에서부터 내적 긴장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이주옥, 1993). 또한 대부분의 자녀와 부모가 잘 지낼 때조차 서로 갈등이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중요한 문제 뿐 아니라 일상적 일에 관한 것일 수 있다(Smetana, 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사춘기라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라는 입장, 둘째, 청소년기의 인지적 변화로 인해 부모-청소년의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유발되어 갈등이 초래된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행동이 부모의 배척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자의식 행동이 많아진다는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Walters & Norrell, 1987).

청소년기에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에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llis-Schwabe와 Thornburg(1986)는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빈번하며 가사조력과 용돈 사용 영역에서 갈등이 높았다고 하였다. Smetana(1989)에 의하면 청소년 5-12학년생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부모는 주로 자녀의 성격특성과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활동규제나 대인관계 규제와 관련된 갈등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남제(1984)는 고교 2년생과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조사하였는데 학업성적, 가사조력, 귀가시간, 용돈사용, 교우관계, 옷차림새, 야간의출, 종교문제 등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의견충돌이 자주 있다고 하였다. 이주옥(1993)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와 갈등은 일상적 가족생활과 관련된 갈등이 많았고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학업성취와 관련된 갈등이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인 경우에는 학업성취 뿐 아니라 행동 특성, 행동 규제, 집안일 등 다양한 갈등의 영역을 보고하였다. 안병조(1983)에 의하면 고교생이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 학습활동, 생활관, 진로문제, 가족문제, 친구관계, 외모 및 건강, 경제문제, 이성교제, 종교문제의 순이었으며 특히 부모의 기대와 능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나은아(1995)는 중 2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교성적, 일상생활 태도, 용돈,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김수연(1996)은 중2 학생이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영역을 숙제와 학교성적, 청소, TV시청, 주말시간 보내기, 형제자매 관계 등에서 갈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충배(1988)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부모와의 의견충돌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지만 비교적 있는 편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의견충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조(1983)연구도 역시 성차가 있음을 밝혔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성교제와 경제문제에 갈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수연(1996)은 성에 관계없이 청소년 남녀 모두가 어머니와의 갈등정도를 비슷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전개된 청소년 자녀-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 성에 따라서 일관된 보고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이 겪는 갈등영역을 보면, 주로 학교성적, 사회생활, 친구관계, 가사일, 용돈사용, 귀가시간, 여가시간 사용, 부모에 대한 불복종, 형제와의 불일치 및 개인적인 위생문제 등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매일의 가족문제와 관련된다(이주옥, 1993; 정경아, 1993; Cogle, Tasker, & Morton, 1982; Montemayor, 1982; Sanik & Stafford, 1985).

갈등표출방식이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자신들의 갈등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을 말

한다. Stenberg와 Soriano(1985)에 의하면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취한 갈등표출방식은 갈등상황에 관계없이 거의 일관성있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부정적인 역할 못지 않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자율적인 생각과 대인간 협상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Vuchinich, 1987).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들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Thomas(1976)는 갈등관리 차원을 자신의 요구만을 만족시키려는 행위인 독단적 차원과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행위인 협력적 차원의 두 차원의 조화에 따라 경쟁, 제휴, 타협, 회피, 적응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Straus(1979)는 갈등표출방식을 이성적 방법인 의논행동, 말다툼과 같은 언쟁행동,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폭력행동의 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갈등표출방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숙(1987)에 의하면 고교생 2년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갈등을 조사한 결과 93%의 대상자가 심하지 않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의 갈등표출방식을 보면 청소년 자녀는 대부분 말을 하지 않거나 무조건 참는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자신의 불만을 조용히 말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아(1995)는 부모와의 갈등시 청소년의 갈등표출방법으로 회피 고립형, 양보복종형, 위협폭력형, 설명설득형, 환심보상형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최선남(1990)은 청소년의 갈등표출을 의논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의논행동이 자주 나타났다고 하였다.

갈등표출방식에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최선남(1990)에 의하면 남학생은 의논행동을, 여학생은 언쟁행동을 자주 사용하였으나, 폭력행동에 있어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하였다. 나은아(1995)는 설명설득형, 회피

고립형 영역에서 성차를 보였는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딸은 아버지에게 합리적인 설명방법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고, 아들은 회피고립형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주옥(1993)에 의하면 성차가 있음을 밝혔는데 남자청소년들은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을, 여자청소년들은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맞서 사태를 해결하도록 능동적으로 양육되는 반면, 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사태를 수용하는 등 수동적 행동을 강조하는 사회화 경향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전술한 연구 경향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갈등영역을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학교성적, TV시청, 취침, 성격, 형제자매관계, 용돈사용, 청소, 청결, 친구, 옷차림 등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갈등 표출방식은 의논 행동, 언쟁 행동, 폭력 행동의 세 범주로 조직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갈등과 갈등표출방식에 성차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바 남녀에 따른 경향을 포함시켜 검토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결과 청소년의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 표출방식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관한 분석을 행함으로써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 지역의 고교 남녀 2년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를 제외하여 468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60.7%, 여학생이 39.3%를 보이고 있다. 출생순위는 막내가 44.7%, 첫째, 33.3%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은 중간 집단이 43.4%, 상집단이 33.5%, 하집단이 23.1% 순으

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도시 53.2%, 농촌 46.8%이었고, 부모의 연령을 보면 45-49세(39.6%), 40-44세(50.3%)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고졸이 48.8%, 49.9%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101-150만원 집단이 32.4%로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근로직(36.8%), 상업 및 서비스직(28.5%), 사무직(22.4%), 관리직(5.4%), 전문직(5.0%), 무직(1.7%)순이었으며, 모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55.9%이며 취업주부인 경우 상업 및 서비스직(24.7%), 근로직(13.5%), 사무직(2.8%), 전문직(2.2%), 관리직(0.9%)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척도는 Printz등(1979)의 문제항목 조사지 (Issues Checklist: IC)를 참고로 한 Papini와 Seby(1988), 정경아(1993), 김수연(1996)의 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일상적 영역에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학교 성적, TV시청, 취침, 성격, 형제자매관계, 용돈, 청소, 청결, 친구관계, 옷차림 등의 총 10문항을 사용하기로 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8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갈등표출 방식 척도는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 최선남(1990), 김정옥(1985)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의논 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의 3개 하위척도,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논행동이란 이성적인 논의, 논리적인 사고 등 지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방식이며, 언쟁행동이란 언행으로 협오감, 적대감, 모욕감, 헐박 등을 표현하여 상징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고 폭력행동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의논행동 .60,

언쟁행동 .73, 폭력행동 .8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1999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에 걸쳐 광주시에 소재한 고교 3개교, 전남 읍지역에 소재한 고교 2개교 2학년생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6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검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 남녀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정도의 차이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갈등 영역 전체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학교 성적, 취침, 옷차림, 청결, 친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 청소년 남녀별 갈등정도의 차이

영역	남자	여자	t
	M(SD)	M(SD)	
학교성적	2.05(0.99)	1.99(0.99)	4.52***
TV시청	2.16(1.14)	2.06(1.03)	.35
취침	1.94(1.00)	1.67(0.91)	3.53***
성격	2.72(1.06)	2.33(0.99)	.00
형제·자매관계	2.48(1.10)	2.38(1.12)	.31
용돈	2.14(1.08)	2.14(1.01)	.99
청소	2.11(1.09)	2.21(1.05)	.35
청결	1.99(1.01)	1.78(1.00)	2.23*
친구	2.41(1.14)	2.03(1.04)	2.38*
옷차림	1.98(1.09)	1.73(0.99)	3.22**
전체	2.187(6.40)	2.134(6.11)	2.12*

* $p < .05$, ** $p < .01$, *** $p < .001$

여기서 성적, 취침 영역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대상이 고교 2년생이므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때이며 사회문화적 특성상 여성보다 남성에게 성취 지향적 성향을 갖도록 요구하므로 성적, 취침 및 기상 시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청소년 남녀에 따른 갈등표출방식의 차이

<표 2>와 같이 의논행동, 언쟁행동에서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학생이 의논행동을, 여학생이 언쟁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선남(199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이주옥(1993)은 딸은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아들과 달리 부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아양을 떨거나 먼저 말을 걸어 화해를 시도하고 변명이나 사과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3. 청소년 남녀별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방식

<표 3>과 같이 남학생은 성적을 제외한 모든 갈등 영역에서 언쟁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용돈, 옷차림, 성격, 취침, 친구, 형제자매, 청결, 청소, TV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언쟁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결, 용돈, 옷차림 영역에서 폭력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옷차림, 형제자매, 성격, 청결, 취침, 친

<표 2> 청소년 남녀별 갈등표출방식의 차이

영역	남자	여자	t
	M(SD)	M(SD)	
의논행동	5.43(1.98)	5.06(1.80)	2.05*
언쟁행동	11.19(3.66)	12.61(3.38)	5.30***
폭력행동	4.52(1.60)	4.36(1.19)	.22

* $p < .05$, *** $p < .001$

〈표 3〉 청소년 남녀별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방식

갈등표출방식		의논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	
		남	여	남	여	남	여
갈등영역		M(SD)	M(SD)	M(SD)	M(SD)	M(SD)	M(SD)
청 소	상	5.51(2.17)	4.83(1.68)	11.98(4.69)	13.65(3.19)	4.83(2.25)	4.46(1.19)
	하	5.39(1.89)	5.19(1.85)	10.82(3.03)	12.07(3.37)	4.38(1.18)	4.31(1.19)
	t	.49	-1.29	2.12*	3.08	1.75	.84
용 돈	상	5.37(2.13)	5.09(1.78)	12.32(4.12)	13.02(2.90)	4.82(2.24)	4.42(1.12)
	하	5.46(1.88)	5.04(1.81)	10.43(3.12)	12.38(3.62)	4.32(0.92)	4.32(1.23)
	t	-.38	.17	4.14***	1.22	2.25*	.56
옷차림	상	5.50(1.99)	5.12(1.72)	11.97(4.07)	13.75(3.58)	4.72(1.99)	4.51(1.21)
	하	5.34(1.97)	5.02(1.86)	10.24(2.85)	11.75(2.96)	4.29(0.89)	4.25(1.17)
	t	.68	.36	4.18***	4.13***	2.39*	1.47
성 격	상	5.50(2.10)	5.00(1.79)	11.47(3.80)	12.96(3.25)	4.54(1.84)	4.35(0.81)
	하	5.30(1.87)	5.10(1.81)	10.73(3.39)	12.39(3.40)	4.48(1.12)	4.37(1.39)
	t	.84	-.38	1.64	1.04	.35	-.11
TV	상	5.44(2.10)	5.24(1.87)	11.73(3.98)	13.21(3.14)	4.69(1.96)	4.28(0.73)
	하	5.41(1.85)	4.92(1.73)	10.62(3.22)	12.14(3.50)	4.35(1.09)	4.42(1.45)
	t	.10	1.18	2.56*	2.14*	1.79	-.91
형제, 자매	상	5.51(2.16)	4.87(1.83)	12.02(4.20)	13.89(3.87)	4.74(2.07)	4.60(1.71)
	하	5.37(1.85)	5.18(1.77)	10.62(3.13)	11.82(2.79)	4.37(1.16)	4.21(0.66)
	t	.58	-1.13	3.03*	3.88***	1.74	1.82
성 격	상	5.50(2.22)	4.82(1.77)	12.34(4.45)	13.82(3.86)	4.81(2.18)	4.68(1.73)
	하	5.38(1.82)	5.22(1.80)	10.51(2.92)	11.83(2.79)	4.35(1.11)	4.15(0.56)
	t	.49	-1.47	3.75***	3.78***	1.96	2.52*
청 결	상	5.46(1.96)	4.94(1.72)	11.80(3.79)	13.42(3.86)	4.70(1.86)	4.48(1.47)
	하	5.39(2.00)	5.16(1.86)	10.41(3.34)	11.94(2.78)	4.29(1.14)	4.28(0.89)
	t	.28	-.83	3.20**	2.92**	2.23**	1.22
취 침	상	5.34(2.03)	4.96(1.93)	12.01(4.05)	13.64(3.27)	4.69(1.93)	4.40(0.89)
	하	5.50(1.93)	5.10(1.74)	10.47(3.12)	12.17(3.25)	4.37(1.93)	4.34(1.30)
	t	-.68	-.48	3.53***	2.77**	1.67	0.35
친 구	상	5.49(2.01)	4.97(1.75)	12.17(4.18)	13.38(3.73)	4.65(1.87)	4.61(1.67)
	하	5.36(1.94)	5.13(1.84)	10.05(2.51)	12.03(2.99)	4.37(1.20)	4.17(0.55)
	t	.55	-.56	5.23***	2.65**	1.51	2.23
전 체	상	5.50(2.11)	5.04(1.83)	12.39(4.07)	13.87(3.57)	4.69(1.92)	4.48(1.23)
	중	5.42(1.80)	5.09(1.70)	10.45(3.21)	12.32(3.21)	4.39(1.23)	4.37(1.33)
	하	5.18(1.99)	5.03(2.02)	8.89(2.09)	10.58(2.05)	4.29(1.16)	4.06(0.36)
	F	.40	.02	19.13***	11.94***	1.51	1.31

* p < .05 ** p < .01 *** p < .001

구, TV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영역의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언쟁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격 영역에서 폭력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격문제로 갈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폭력행동을 주로 많이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언쟁행동과 폭력행동을 자주 사용한다는 점과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방식이 청소년성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남녀에 따른 갈등정도는 갈등 영역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교 성적, 취침, 옷차림, 청결, 친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남녀에 따른 갈등표출방식은 의논행동, 언쟁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의논행동을, 여학생이 언쟁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정도에 따른 갈등표출방식을 보면 남학생은 성적을 제외한 모든 갈등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언쟁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청결, 용돈, 옷차림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폭력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옷차림, 형제자매, 성격, 청결, 취침, 친구, TV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언쟁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격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폭력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 취침 등의 갈등이 높은 것은 사회 문

화적으로 남성에게 성취 지향적인 성향을 갖도록 사회화 시켜준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즉, 부모의 과잉 교육열, 학교환경에서 학업성취 위주,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맞물려 남학생에게 더욱 갈등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성 함양을 위한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체제가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안에서 자리매김을 할 때 청소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잘 적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학생의 갈등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화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자녀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 자녀간의 갈등정도가 심각할수록 언쟁이나 폭력행동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선, 부모 자녀간의 갈등정도가 심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진수를 준비하는 데 부모의 효율적인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중년기에 해당이 되므로 실직이나 정체성에 대한 위기 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부모를 이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표출방식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기부터 단순한 의사소통의 양보다 효율적인 의논행동 패턴을 습득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감 조절 훈련이나 말하기, 듣기 기술을 부모-자녀 쌍방이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영역이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측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갈등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점 둘째, 갈등 정도와 갈등표출방식은 부자, 부녀, 모자, 모녀간에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다.

보다 진전된 추후연구를 위해 제언을 해보면 다

음과 같다. 전술한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와 함께 첫째, 청소년 자녀의 갈등은 부모자신의 갈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영역이 심층적으로 파악되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한 갈등 측정도구가 개발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권이중(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양서원.

김경숙(1987).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논문집, 15, 9-40.

김경화(198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1996).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91-25.

나은아(1995).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충배(1988).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대전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병조(1984).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경아(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범모(1977). 국가발전과 청소년. 서울: 배영사.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 소통 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남제(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Bryant, B. K. (1992).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5-50.

Cogle, F. L., Tasker, G. E., & Morton, D. G. (1982). Adolescent time use in household work. *Adolescence*, 17, 451-455.

Ellis-Schwabe, M., & Thornburg, H. D. (1986). Conflict area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120(1), 59-68.

Montemaye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1), 1512-1519.

Pa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Prinz, R.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 (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19-700.

Rubenstein, J. L., & Feldman, S. S. (1993).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ntecedents and adaptational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 41-66.

Sanik, M. M., & Stafford, K. (1985). Adolescents' contribution to household production: male and female differences. *Adolescence*, 20, 207-215.

Silverberg, S. B., & Steinberg, L. (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6(3), 293-313.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Vuchinich, S. (1987).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591-601.

Walters, L. H., & Norrell, J. E. (1987). Pubertal status,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Family Perspective*, 21(4), 355-368.